

4. 淀・요도



1990년移設「唐人雁木旧趾」・1990년 이설「당인안목구지」

1. 地域概観・지역개관

現在、淀は京都市伏見区の一部です。「淀」というのは水がよどむということから呼ばれた地名で、桂川・宇治川・木津川という三大河川が合流する場所です。

水運の港「淀津」は平安時代から京都への交通・物流の拠点となりました。

江戸時代になると、三川合流地点の中島に淀城が築かれ(1623年二代将軍秀忠が築城を命じ、三代将軍家光の頃1625年に完成)京都の南の拠点という位置的にも重要な場所でした。

このように淀は独立したまちとして約300年の歴史をたもってきた地点でした。

요도는 교토시 후시미구의 일부다. “요도”란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다는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카츠라가와, 우지가와, 기츠가와와의 3대 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수운의 항구인 ‘요도츠’는 헤이안 시대부터 교토로 향하는 교통과 물류의 거점이 되었다.

에도시대가 되면 세 개의 강 합류 지점 중도에 요도성이 축성되어(1623년 2대 장군 히데타다가 축성을 명하고, 3대 장군 이에미츠 시기인 1625년에 완성) 교토 남쪽 지점으로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였다.

이처럼 요도는 독립된 마을로서 약 300년의 역사를 지켜 온 지역이었다.

大坂から淀川を船でさかのぼってきた朝鮮通信使一行は、ここで船から降り馬や輿に乗って陸路で京都に向かいました。船から下りるために臨時につくられた栈橋があった場所に「唐人雁木旧趾」が立っています。

오사카에서 요도가와를 배로 거슬러 올라온 조선통신사 일행은 여기서 배에서 내려 말이나 가마를 타고 육로로 교토로 향했다. 배에서 내려오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선반이 있던 곳에 “당인안목구지”를 세웠다.



朝鮮聘禮使淀城着来図・조선빙례사 요도성 도착 그림



上：淀城跡公園内に移設された「唐人雁木跡」の原碑。1928(昭和3)年に三宅安兵衛遺志によって建立・
 위：요도성터 공원내에 이전 설치된 「당인안목터」 원래의 입석 (1928년 건립)
 下：淀城跡公園・아래：요도성터 공원

2. 関連人物・관련인물

渡辺善右衛門·와타나베젠우에몬

淀藩の藩士であった渡辺善右衛門が朝鮮通信使の接待にあたっ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彼が書き記している『朝鮮人来聘記』は朝鮮通信使自体の動向というより、これを迎える淀藩の応接準備とそれに翻弄(ほんろう)された藩士が右往左往するさまを、実際に見た事や噂を交えてかいた記録といえます。第1冊は1748年に江戸に到着した第10回通信使の記事になっており、到着時に1,500人を動員し準備万端整えていたのに、通信使一行5月2日昼過ぎに到着、数時間休憩しただけで京都へ向けて出発した様子がわか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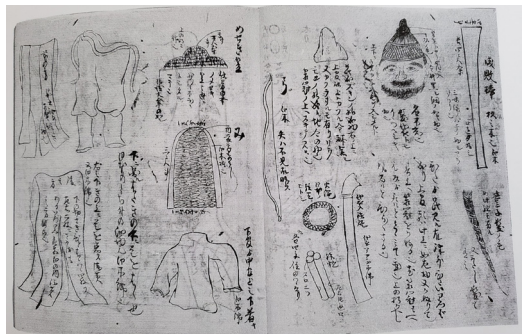
第3冊は江戸からの帰途、通信使が6月28日に淀で休憩したことの記事です。この時に善右衛門が観察した通信使一行の風俗・衣裳・器物の絵が収められており、通信使や宗対馬守の行列次第、応接大名一覧など便覧的(びんらんてき)な記事も多いです。

요도 번의 번사였던 와타나베 젠에몬이 조선 통신사의 접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가 남긴 기록인 『조선인내빙기』는 조선 통신사 자체의 동향이라기보다, 이들을 맞이하는 요도 번의 응접 준비와 이에 우왕좌왕하는 번사들의 모습을 실제로 본 것과 소문을 함께 쓴 기록이라고 한다.

제1권은 1748년에 에도에 도착한 제10회 통신사의 기록으로, 도착시에 1,500명을 동원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통신사 일행이 5월 2일 낮을 지나서 도착해 수 시간 휴식만 하고 교토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제3권은 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통신사가 요도에서 6월 28일에 휴식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이때에 관찰한 통신사 일행의 풍속·의상·기물의 그림이 정리되어 있고, 토인사와 대마도주 소씨의 행렬 절차, 접대 영주 목록 등 편람적인 기록도 많다.



에피소드·일화

1. 朝鮮通信使と淀の人々・朝鮮通信사와 요도 사람들

朝鮮通信使の一行約500名、護衛(ごえい)の対馬藩から約1500人、さらに輿(こし)を担ぐ(かつぐ)人、馬を引っ張る人など運送のための人夫さんが約1500人、合計3500人という膨大(ぼうだい)な人が淀を訪れるわけですから、大変な準備が必要で以下のような準備が行われました。

- ・船を停め人や物が陸に上がるための棧橋(さんばし)(「唐人雁木」)づくり。
 - ・終夜あかりを照らして、船に知らせるため淀小橋に灯台を設置。
 - ・兩岸の綱引きが円滑にできるよう、堤防沿いの通路整備。
 - ・川御座船が座礁(ざしょう)しないように淀川の水路を十分確保する。
 - ・提灯(ちょうちん)や幕をはる。
 - ・宿の準備。
- また、町の人たちには次のようなお触れが出て、安全に滞り(とどこおり)なく通信使を迎え、送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ぬとされました。
- ・朝鮮通信使の一行に短文や詩を書いてもらったり、絵を書いてもらいたい人が多すぎるので、負担をかけないこと。
 - ・用が無ければ通信使一行に声をかけないこと。
 - ・不作法をしないように、大きな声で話したり、高い声を出さないこと。

조선통신사의 일행 약500명, 쓰시마번으로부터 호위로 약 1,500명, 여기에 가마를 짊어지는 사람, 말을 유도하는 사람 등 운송을 위한 인부가 약 1,500명, 모두 3,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요도를 방문하기 때문에, 방대한 준비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가 이루어졌다.

- ・배 정박하고 물건을 육지로 올리기 위한 다리(당인안목) 만들기.
 -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배에 알리기 위해서 요도 고바시에 등대 설치.
 - ・양쪽 강변에서 줄 당기기가 원활하도록, 제방변의 통로 정비.
 - ・카와고자부네가 좌초하지 않도록 요도강의 수로를 충분히 확보
 - ・등불이나 막을 붙인다
 - ・숙소의 준비.
- 또,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져 안전에 만전을 기해 통신사를 맞이하고, 보내도록 해야만 했다.
- ・조선통신사의 일행에게 단문이나 시, 그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담을 주지말 것.
 - ・용건이 없으면 통신사 일행에게 말을 걸지 말 것.
 - ・무례를 범 하지 않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높은 목소리를 내지 말 것.
 - ・줄 당기는 인부는 통신사 일행이 보기에 머리나 수염, 복장 등이 흥하지 않도록 정리할 것.

- ・綱引人夫は通信使一行が見るだろうから、髪やヒゲ、服装など見苦しくないように整えること。

2.どのように朝鮮通信使を接待したか・조선통신사 접대 어떻게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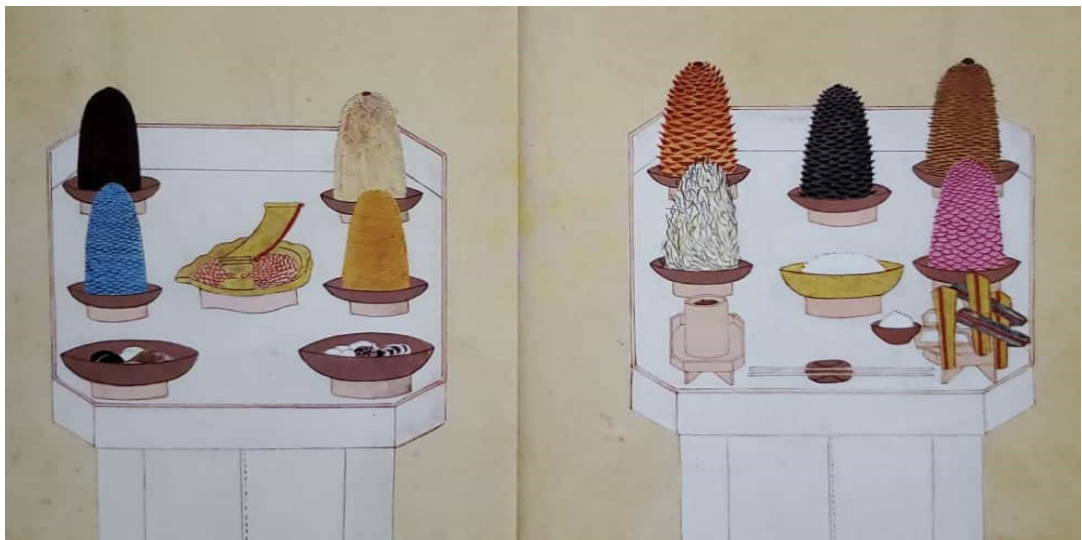
徳川将軍に提出する朝鮮国王の国書ですが、これを大切に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国書台」という白木の台にのせて保管しました。一番の主賓である正使の宿には高級な飾りや文具が用意されました。

夕食には「二汁八菜」で「なます、汁、香物、飯、坪皿、平皿、汁、猪口あへ物」が出され一人では食べきれないようなメニューが出されました。翌朝には「二汁七菜」で一皿減っているだけです。

沿道には見物に来た人たちであふれていました。面している家々では見物料をとって見物客を入れました。京都では満員になるので淀まで見物に来た人もいました。

도쿠가와 장군에게 전하는 조선 국왕의 국서는 조심해서 다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국서대」라고 하는 백목대에 올려 보관했다. 최고의 주빈인 정사의 숙소에는 고급 장식이나 문구가 준비되었다. 저녁 식사는 「국 2가지, 반찬 8가지」로 「생선회, 국, 향물, 밥, 평접시, 납작하고 평평한 접시, 국, 작은 사기 잔아에 물건」이 접대되어 혼자서는 전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메뉴가 제공되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국 2가지, 반찬 7가지」로 한가지가 적을 뿐이었다

도로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넘치고, 도로에 접해있는 집에서는 구경값을 받고 구경꾼을 받았다. 교토에서는 만원이 되므로 요도까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다.



朝鮮人御饗応七・五・三膳部分(蓮左文庫蔵)・조선인향응 7・5・3 밥상 부분(렌사문고 소장)